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Navy Captain, Commanding Officer of ROKS Dokdo LPH-6111, Oh Soonkun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부끄럽지만 저의 진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관학교 입학부터 교육을 포함한 각종 선발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군생활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대로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실패와 좌절 없이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월의식과 교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 성수와 봉사도 잘하는 성실한 신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만약 예수님께서 제 내면을 보셨다면, "교만하고 외식하는 악한 종아"라고 꾸짖으셨을 겁니다.

처음 진급선발 과정에서 동기생의 절반이 진급했는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현재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저에게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진급에 대한 보장과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관계를 통해, 저를 진급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음 계급은 동기생의 20%만 선발되는 더욱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낙방의 아픔과 부끄러움은 여전했지만, 그렇게 불안하거나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 진급 선발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과 시기, 인적요소 등 진급 선발의 전 과정들이 하나 둘씩 저에게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조건으로 진급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계획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실패와 좌절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통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실패와 좌절 없이 기쁨만 주셨다면, 저는 아직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보다 더 앞서 나가는 동료들로 인해 위축되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오는 동료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의 진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늘나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